

Saemmul Christian Academy

SMCA

2025 봄여름 소식지
샘물이야기 vol.18



목차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3)

학생들의 생각 나눔 (4)

10학년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 샘물중고등학교 11학년 13기 김선진 (4)

네팔, 그 이후 - 샘물중고등학교 11학년 13기 함서진 (7)

4학년 윤서의 2025 봄여름학기 (8)

7학년 도규의 2025 봄여름학기 (10)

10학년 한음이의 2025 봄여름학기 (13)

2025 샘물의 시 이야기 (16)

살리기 위해 뛰는 아이 -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윤예권 (17).

내가 만일 - 샘물중고등학교 7학년 허도규 이시은 전세계 박해인 (18).

씨앗 - 11학년 장희주 (20). 비전트립 - 11학년 이도윤 (21). 조용한 침식 - 11학년 강은성 (22).

샘물그리다 샘물글이다 : 걸음 - 7학년 김지훈 (23). 태빈이가 예준이에게 - 11학년 임태빈 (24).

카키색 10학년 김예준 (26). 나무 - 11학년 남서현 (27)

공동체 소식 (28)

국토순례과 거름후원 (29)

은혜샘물유치원, 고난주간의 일주일 (31)

"자라납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교가와 인사말 (32)

[후원보고서] 2024 후원보고서 (34)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생각 나눔 I

(편집자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샘물의 10학년들은 학년을 마무리하는 겨울방학에, 그동안 학교 안에서 배움을 선교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비전트립은 학교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익히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제자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3기들이 당진과 네팔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13기의 이야기를 심습니다.

10학년,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13기, 김선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네팔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비전트립을 다녀온 11학년 김선진 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 옆에 계신 분들과 제이머시 하고 인사해 볼까요? 제이머시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네팔 인사말 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던 네팔 비전트립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네팔비전트립을 먼저 다녀오신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며, 네팔을 향한 마음이 오래전부터 확고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게 수월할 것만 같은 사역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길은 그리 순탄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13기 속 크고작은 문제들로 인해 망가진 관계들, 뜻대로 되지 않아 지쳐가는 저를 보며, 과연 네팔을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자그만 후회를 안고 떠났습니다.

학교사역을 하며 저희는 수라차나 학교에서 4일간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그 아이들은 저희가 처음 온 순간부터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계속 마음에 담아두던 자그만 후회는 언제 있었냐는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섬김을 준비했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필요했던 것은 저희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려 노력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돌아가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서 왜 정작 나는 바로 옆에 있는 13기 공동체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걸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구실들을 늘어놓던 저의 모습은, 진정한 예수님 사랑 앞에서 가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교회를 방문하며 수라차나 학교 사역을 마치고 현지 교회에도 방문했는데요, 현지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 기대도 안했던

저의 생각과 달리, 네팔 교인들은 교실 하나 크기의 공간을 가득 채웠고, 처음으

로 교회에 나오신 한 분의 수라차나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개종금지법으로 자유로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진정한 진리를 위해 삶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은혜로웠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기려 하는 제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10학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트립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 무엇보다 나의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모두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또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달아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다음 후배님들을 응원하며, 삶의 제이머시를 외치는 샘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팔 비전트립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팔, 그 이후

13기, 함서진

오만함에, 우월감에 빠져 세상을 바라보게 했던 안경을 벗고,
뒤를 돌아 발자국을 보니
진흙과 오물이 묻어 더러워진 신발을 보니
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 이제 안경을 벗고, 신발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리라.

“ 네팔선교의 목적은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이, 나에게 우월감을 심긴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며 평가를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인 건 그때였다. 돌아보니 준 것 보다 받은 것이 더 많고, 준비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만함과 나의 힘으로 해나가려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 이런 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까.

-시의 배경에 대해. 11학년 함서진

학생들의 생각 나눔 2.

(편집자주) 2025년 여름방학예배. 봄여름학기를 보낸 학생들의 나눔을 전합니다. 4학년, 7학년, 10학년 학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4학년 윤서의 2025 봄여름학기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은혜반 박윤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학기 동안 감사했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감사가 흘러 은샘초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가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할 때면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는 것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향한 감사입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키가 3학년 때보다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끔씩 집에 형과 저만 있을 때가 있는데 형은 그때마다 저를 잘 돌보아주고 저에게 밥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형에게도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감기에 걸리셨을 때가 있는데 아프실 때도 저와 친구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수업이나 미술 시간에 저희를 데리러 와주시는데 가끔 저희가 늦게 끝나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잘못을 할 때에 처음부터 바로 화를 내시지 않고 여러번 기회를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 과목과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향한 감사입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친구들은 많이 참아주었습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6월에 배운 분별력의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매일매일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감사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7학년 도규의 2025 봄여름학기

안녕하세요 저는 7복음 허도규입니다. 샘물에 첫 발을 내딛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방학 예배를 맞이하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저는 7학년으로서 맞이한 첫 학기동안 샘물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은 참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배움의 시간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수업들, 국토순례, 컨퍼런스 등 샘물만의 소중한 공동체 경험 등 여러가지 이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느낀 세 가지 사랑에 대하여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낀 사랑은 저희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입니다.

처음 샘물에 온 날 저는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샘물에서 살아가면서 선생님들은 저를 가르쳐주셨고, 격려해주셨으며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비록 저희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저희를 꾸짖으시고, 혼내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속에서 끝



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한명 한명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섬겨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샘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어떤지’ 질문하시며 챙겨주셨습니다. 또한 개념이 이해가 잘 되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많이 답답하셨을텐데도 제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변을 토하며 설명해주셨습니다. 바쁘고 힘드시지만 저희를 돌보아주시고 수고하여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사랑은 서로를 향한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저는 은혜샘물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샘물에 와서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고 우정을 나누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고 말도 잘 걸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더 친해져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되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저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여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며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샘물에서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느낀 사랑은 샘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샘물에 입학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샘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침 복상을 통해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저의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그렇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체 예배와 성경, 복상, 샘물 수업 등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나의 마음을 가꾸고 돌아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샘물에서의 사랑의 모습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누어도 그대로인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는 예수제자로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학년 한음이의 2025 봄여름학기

밝았습니다. 감사나눔을 하게 된 10학년 3반 김한음입니다.

샘물에 편입한 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용기를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떨리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샘물에 오기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2 겨울방학 때 저는 아버지의 사역지 이동으로 김포에서 용인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작은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제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믿음으로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학기에 맞춰 간 학교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낯설었고 무엇보다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무신경한 반응과 태도가 내 향인이었던 저에게는 무척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며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시간이 오랜 시간 이어졌고, 나날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남들이 시켜서 혹은 남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제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찾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꽤나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을 제 삶에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퇴 후에 우연히 지인을 통해 샘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선택하기까지 또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샘물이 하나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샘물의 생활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나 학업, 습관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만 같은 학교 생활은 체력적으로 지쳤고, 제 마음 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저는 다시 한 번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눈 앞에 보이는 관계가 어려웠던 만큼 이 부분을 중점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기도가 바꾼 것은 제가 바라는 관계가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아닌 주님과 저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셨고, 고통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도 도망치기 보다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전과는 다르게 형식적이지 않고 저의 진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새롭게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변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은 매 순간마다 있을 것 입니다. 그 힘듦의 정도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려운 순간들도 정말 놀랍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시간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

샘물의 시 이야기

올해는 샘물배움공동체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의 시가 많이 들어왔어요. 온작품 읽기를 통해, 국어시간에, 문학시간에, 그리고 샘물 그리다 활동을 통해, 샘물인들은 시로 마음을 표현해 봤습니다.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를 읽어보니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학생들의 시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살리기 위해 뛰는 아이

윤예권

타닥 타닥
말 발굽소리 같은
누나의 뛰는 소리

나에게 익숙한 작은손이
나를 들고 뛰는 다

누나의 매서워지는 숨소리와
점점가늘어지는 나의 숨소리

내 입에 쓴맛이 생긴다
나의 숨소리가 산다

5학년 박다영 선생님: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온작품 읽기를 통해 문학 작품을 읽고, 말하고, 쓰고, 토의하며 깊이 있는 성찰을 합니다. 5학년 학생들의 이번 온작품 읽기 작품은 『담을 넘은 아이』입니다. 조선시대 차별과 가난 속에서도 글을 배우고 동생을 지키려 한 소녀, '푸실이'의 이야기로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담'이 상징하는 두려움, 차별,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쓴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윤예권 학생의 시를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7학년 복음반
허도규, 이시은, 전세계, 박해인

내가 만일 연필이라면
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너의 꿈을 그려줄거야
너가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말을 대신 쓰고
전해줄게
너의 연필이 되어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만일 지우개라면
너가 부끄러워서 없애고 싶은 기억들을 지워주고
네가 간직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을 지워줄거야
또 너가 실수로 저지른 일을
남모르게 지워줄게
너의 지우개가 되어
너의 힘과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만일 '자'라면
네가 뽀뽀 뽀뽀 하지 않게 잡아주고
바르게 그리고 쓸 수 있도록
도와줄거야
내가 너의 '자'가 되어 너의
힘과 도움과 응원이 되어줄게

내가 만약 필통이라면 너의 뽀족함을 가려주고, 지켜주겠어
너가 너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너의 공간이 되어줄게
가끔 얼룩덜룩해지고 구멍이 뚫려도 괜찮아
내가 너의 필통이 되어 너의 힘과 도움과
응원과 힘이 되어줄게

시굴비: 굴비처럼 엮인 시
7학년 국어 시온샘



이 수업은,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함께 듣고 노랫말에 이어, 맛있는 '시(詩)굴비'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둠원들과 함께 '내가 만일 ○○라면'이라는 주제로 작은 상상을 해보는 시 활동으로 모둠원들과 어떤 상황으로 설정하여 쓸지 의논한 후,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굴비에, 모둠이 정한 주제의 개인의 시를 쓰고 굴비를 엮듯 협동시로 엮는 과정이었습니다.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11학년 국어 모듈샘:

13기 문학수업, 개학하고 첫 시간에 '나의 겨울방학'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쓰게 했던 시예요. 서툰고 어색한 낱빛으로 써내려간 시들이지만, 다 쓰고나서 읽을 때 몇몇은 훌쩍이기도 했던..서로의 마음을 울리고 울렸던 시들입니다. 그중에서 몇 편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씨앗

11학년 장희주

주머니에 있던 씨앗을 툭툭 떨어뜨렸다. 그중 몇 개는 심었고 몇 개는 물에 빠뜨렸다. 땅만 보다가 하늘을 보니 햇살이 비추었다. 시간이 지나자 구름이 햇살을 가리었다. 다시 걸어가며 씨앗을 툭툭 떨어뜨렸다. 그중 몇 개는 새가 먹었고 몇 개는 바람에 날아갔다. 시린 바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간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걸어가며 씨앗을 툭툭 떨어뜨렸다. 몇 개는 갈라진 땅에 틈새로 빠졌고 몇 개는 밟혀 으스러졌다. 다리가 아파 주저앉았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구름은 무거운 빗방울을 토하여 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구름이 모든 것을 게워내고 떠난다. 축축해진 몸을 감싸고 일어나 하늘을 보니 아무것도 없이 그저 푸르기만한 하늘이 보인다. 희미한 빛을 따라 뒤돌아보니 무성한 숲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있었다.

*작가의 말: 봄 컨퍼런스에서 느낀 점을 시로 표현했다.

햇살과 빛은 하나님, 구름과 비는 고난과 어려움, 씨앗은 시간, 숲은 13기 친구들과 공동체를 의미한다.

비전트립

11학년 이도윤

준비 된 겨울방학

준비 된 비전트립

준비 된 계획

준비 된 출국

준비 된 만남

준비 된 수업

준비 된 공연

준비 안 된 이별

준비 안 된 이런 엔딩

조용한 침식

11학년 강은성

여기저기 금이 간 도자기가 점토들의 나라에 놀러 왔어요.

도자기는 점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작고 여리다고요.

얼마 후, 도자기는 점토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도자기는 점점 자신에게 스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도자기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렁물렁, 말캉말캉. 마치 예전 점토였던 시절처럼.

도자기는 더 이상 도자기가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도자기는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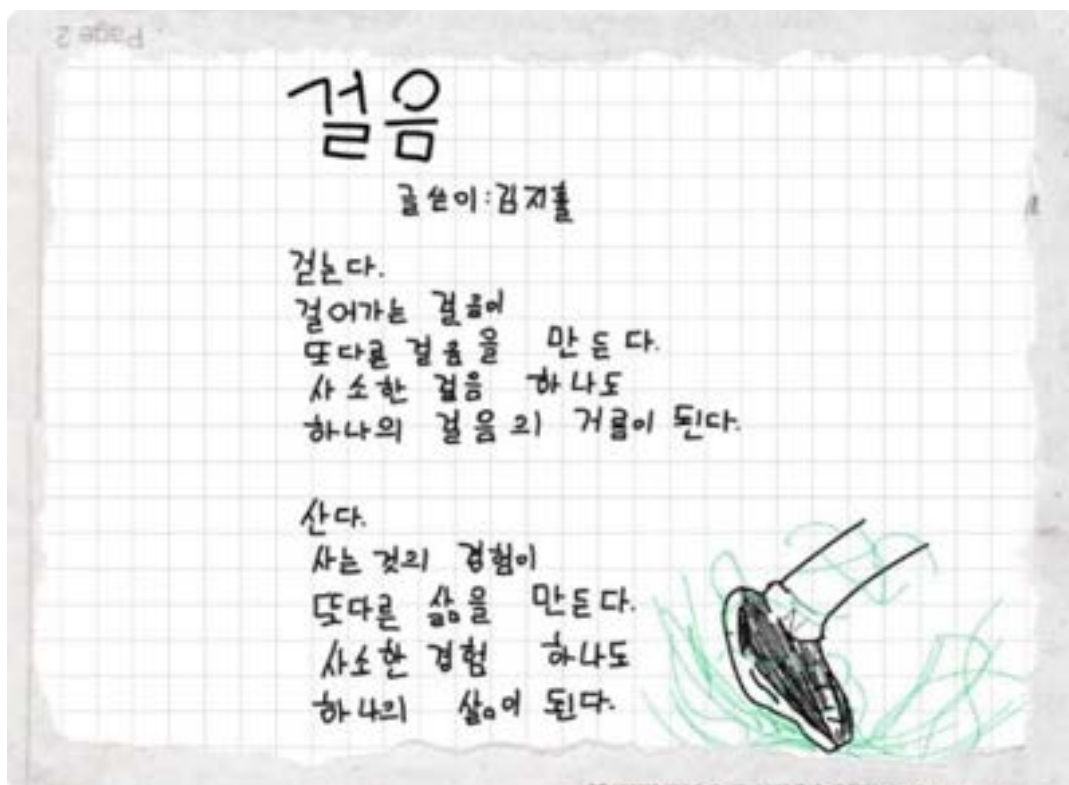
도자기는 점토들의 눈물을 품고 떠났습니다.

샘물 그리다 샘물 글이다

(편집자주)

2025년 5월 2일. 교내 곳곳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글을 씁니다. <샘물 그리다>이자 <샘물 글이다>를 통해 국토순례를 다녀온 기억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 조별로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수상작을 몇 편 골라 소개드립니다.

7학년 김지훈 (8조)



태빈이가 예준이에게

내 마지막 국토순례, 설레는 마음으로 마니또 종이를 펼쳤다. '이에준'
나는 9학년 이에준의 마니또였다
처음 이름을 확인했을 때 조금 막막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같은학년 친구와만 붙어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건네도 저 먼 허공에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친해지면 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설렘을 가지고 길 위에서 나는 말을 걸었다

"예준아 넌 취미가 뭐야?"

"딱히...없어요"

"예준아 넌 축구 잘해?"

"아니요"

"샘스 할거야?"

"네"

뭐 계속 이런 식이었다.

나는 열심히 말을 걸었고, 그는 길을 걸었다

가끔은 내가 혼자만 떠돌고 있다는 현실자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예준이와 대화한다는 건 마치 배드민턴을 치는 기분이었다.
둥그랗고 묵직한 소망을 위에, 너르고 가벼운 날개를 달아
나는 서둘러 날리듯 말을 건넸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이번엔 나에게 되물어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던 와중

돌연 예준이의 같은 학년 친구가 꽃가루 알러지로 차를 타게됐다
문득 예준이가 신발 한 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돌이 붙어서 걸음을 나아가던
모습이 꼭 한결레의 신발을 이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짝은 잠시 멈췄고,
예준이는 혼자 걷고 있는 듯했다.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였다.

예준이는 늘 과묵했다. 되돌아오는 셔플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서운했던 것도 아니었다. 조용해 보여도 내 대화를 조금씩
즐기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에게는 나름의 대화 리듬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리듬을 깨고싶진 않았다.

나 또한 선배들에게 말을 걸 때에는 더 신중했던 것 같아,
다른 후배들의 가방을 들어주며 걷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마니또 가방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나는 잠깐 큰 번뇌에 빠졌다. 분명 예준이는 나보다 체격도 더 좋고, 가방도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았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예준이에게 갔다

"예준아 나랑 가방내기 할래?"

"중요"

가위바위보!

내가 졌다.

내가 원한 결과였지만 너무 좋아하는 그의 모습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루듯했다

'예준아 나는 내가 이겼어도 결국 네 가방 들어줄 거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동이 가벼워진 예준이는,
나를 뒤로한 채 저 멀리까지 달려갔다.

나는 아직도 그에게 셔플룩을 보내고 있다.
대답은 없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그 공이 닿아 대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천천히라도 그 셔플룩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예준이의 속도로

카키색

8조 10-3반 김예준

팔레트에서
약간의 회색을 섞은 맛있는 색

어두워도 카키고
밝아도 카키다

자기 자랑만 하는
뽕한 색들보단 어둡지만
더 특별하고
친밀한 그런 색

어떤 색과 어우러져도
어울리는 색

우리도 그런 색이었음 좋겠다.

때론 어둡다
때론 밝다

자기 자랑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보단 어두울지도 몰라도
서로 더 친밀하고
더 특별한 그런 사람

누구와 어울려도
어떤 상황과 어우러져도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

팔레트 위에서
그의 작품에 한 획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나무]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 한그루가 서 있다.

나무를 반짝이게 하는건 무얼까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나무와 같았다.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르겠지,
나는 어떤 나무로 보였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갓 입학한 7학년이 바라본 나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였으면,
어느정도 적응이 된 8학년이 바라본 나는
편안한 나무 한 그루였으면,
중간을 잇는 9학년이 바라본 나는
튼튼한 나무 한 그루였으면,
약간의 부담감을 가진게 된 10학년이 바라본
나는 나이트가 두꺼운 나무 한 그루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봐온 나무들은 그랬다.
그때 나의 시선에 그들의 나뭇잎은 하늘을 가렸고
언제든 다가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쉴수만 있다면
참 좋았을텐데, 그 나무들이 맺은 열매가 무르익어
땅에 떨어졌고 그대로 썩을 피웠다.
나무 한 그루가 또 다른 나무를 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바라본 나는 어떤 나무였나요
끝없는 물음을 쏟아내보지만
그저 눈부신 햇살로 반짝여줄 뿐이다.

샘물배움공동체 공동체 소식

걸은 만큼 거름후원

국토순례 통해 1천2백 여 만원 산불피해지역 후원

샘물중고등학교 국토순례 기간 동안 매년 풀뿌리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거름후원이 진행됩니다.

이번 국토순례 거름후원 모금액은 경남 산불 피해지역으로

학생들이 걸은 만큼 약정해 후원하는 이번 거름후원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통해 모은 성의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후원금은 지난 3월 있었던 경남 대규모 산불의 피해지역을 돕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걸은 만큼 약정에 참여, 1천2백여 만원 기부

학생들은 1km 당 50원에서 500원까지 약정에 참여했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거름후원에 함께했는데요.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 거름후원에 245명이 참여, 약 9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한 4월 연합예배 헌금까지 포함해 11,988,95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액은 모두 희망친구 기아대책을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에 후원되었습니다.

풀뿌리학생자치회, 모금이벤트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진행

풀뿌리학생자치회는 모금이벤트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기획했는데요. 후원 참여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국토순례 조장과 샘지기가, 150명 이상이면 교감선

생님들도, 200명 이상이면 교장선생님과 연구소장님, 총괄이사님까지 챌린지에 참여하는 기획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름후원에 무려 245명이 참여,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22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함께 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의 스포츠대전 랫츠 뛰샘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었던 아이스버킷 현장도 샘물오늘에서 확인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거름후원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랫츠뛰샘 #아이스버킷챌린지



#

고난주간의 일주일 은혜샘물유치원의 유치원 생활

2023년 시작한 주간유치원이 57화를 맞았어요. 은혜샘물유치원은 유치원 어린이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격주에 한 번.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은혜샘물유치원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고난주간의 일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알게 되는 하루하루의 여정. 은혜샘물유치원 어린이들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자라납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인사말과 함께 교가도 생겼어요

밝았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의 인사말이지요. 오후에는 맑았습니다, 저녁에는 고요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공모를 통해 6학년 유로하 학생의 인사말 선정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은혜샘물초등학교에도 올해부터 인사말이 생겼습니다. 작년 은혜샘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사말이에요. 자라납니다. 6학년 유로하 학생의 출품작으로 최종 선정된 이 인사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함께 자라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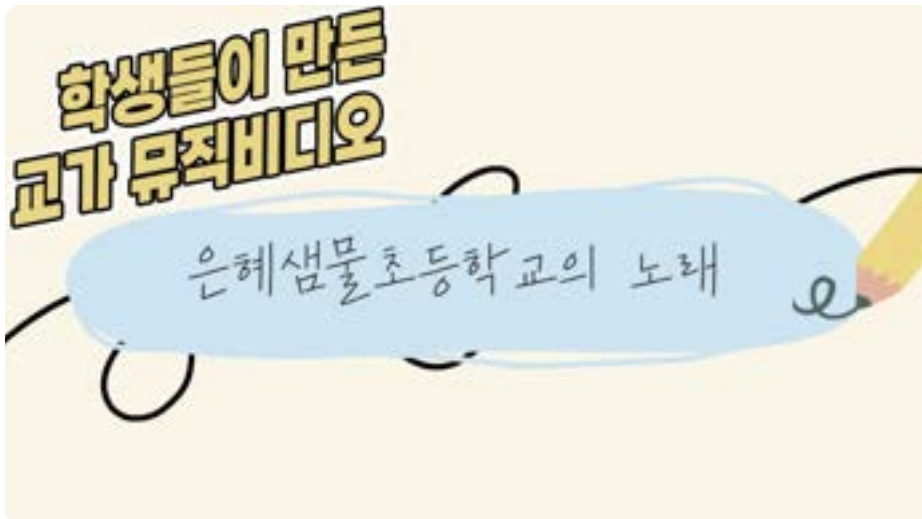
유로하 학생의 설명: grows(자라다)는 grace(은혜)로 자라나는 '우리'라는 뜻이 있고, 자라나는 것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새싹이 초록색이고 우리학교 교복도 초록색으로 잘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에 다니며 '자라다'의 사전적 의미인 '성숙하고 발전하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길 원하시는데, 이 인사말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교가

학생들과 교사 공동체가 작사하고, 음악선생님이 작곡

더불어 올해 은혜샘물초등학교 교가도 나왔어요. 2025년 공개된 은혜샘물초등학교의 노래는 학생들과 교사 공동체가 함께 작사하고 음악선생님이신 원더샘(황진아 선생님)이 작곡해 주셨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부른 음원으로 학생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출품된 3개 작품 중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5학년 학생들 5명이 함께 만들었다고 해요. 모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교가 이야기 [바로가기](#)



뮤직비디오 제작: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김주원, 진채은, 정소원, 송유안, 장서윤



#

2024 후원보고서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후원자님이 만들어주신 샘물의 변화를 후원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샘물배움공동체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후원보고서 [바로가기](#)

이전 후원보고서 [보러가기](#)



#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배움공동체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25.08. **발행처** 샘물배움공동체 **발행인** 윤만선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 156 (상하동 506번지)
T. 031 714 7091 **F.** 031 8005 7093 **E.** public@smca.or.kr www.smca.or.kr